

5/9/21

설교 제목: 나머지 여덟 아들에 관한 예언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49 장 13-28 절

(창 49:13)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 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창 49:14) 잇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꿩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창 49:15)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창 49:16)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창 49:17) 단은 길썬의 뱀이요 샅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창 49:18)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창 49:19)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창 49:20)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창 49:21) 납달리는 놓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창 49:22)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 49:23)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창 49:24)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창 49:25)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창 49:26)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창 49:27)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창 49:28)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에 이어 나머지 여덟 아들들이 후일 당할 일에 대한 예언적인 유언을 계속 합니다.

요셉에게 주는 예언을 제외하고는 한 두 절로 짧습니다.

야곱은 레아 라헬 빌하 실바 네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열 두 명의 아들들을 두었는데 그 중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아홉째 잇사갈, 열째 스블론은 레아 소생이고 열 한째 요셉, 열 두째 베냐민은 라헬 소생입니다.

나머지는 라헬의 여종 빌하와 레아의 여종 실바 소생인데 다섯째 단, 여섯째 납달리는 빌하 소생이고 일곱째 갓, 여덟째 아셀은 실바 소생입니다.

본문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여덟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블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 49:13) 스블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 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스블론이 배 매는 해변에 거주한다는 것은 무역과 상업을 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육로가 개발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배를 이용한 바다 무역이 성행했으며 이에 따라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가 발달 되었습니다.

시돈은 두로 북방에 있던 항구 도시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언대로 스블론 지파는 시돈을 중심으로 무역업과 상업을 하여 부를 거머 쥐었습니다.

그렇지만 항구 도시들은 무역을 하느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관계로 영적으로 문란합니다.

시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 왕과 결혼한 시돈의 공주 이사벨입니다. 이사벨은 이스라엘에 바알 신전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육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어떤 신이 참 신인가를 놓고 백성들 앞에서 벌인 바알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같이 시돈은 이스라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긴 했지만 동시에 영적인 문란 등의 악영향도 끼쳤습니다.

잇사갈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 49:14) 잇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꿩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창 49:15)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잇사갈을 건장한 나귀에 비유했습니다.

힘이 세고 튼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우직하면서 성실할 뿐 특출한 점이 없는 짐승입니다.

잇사갈 지파를 이런 나귀에 비유한 것은 그들이 나귀처럼 힘이 세고 우직하며 성실하지만 다른 면에서 특출한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이 말은 그들의 낙천적이고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기질을 말하는 것이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라는 말은 그들이 수행할 농업 분야의 성실한 사역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잇사갈의 후손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으며 피지배층으로 육체 노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단에 대한 예언입니다.

야곱은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에게 예언을 준 후 다섯째인 단을 지나치고 열째 스불론 아홉째 잇사갈에게 예언을 주었습니다.

단은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이고 열째 스불론, 아홉째 잇사갈은 레아의 소생입니다.

단은 야곱이 자신의 차례에서 자신을 지나치고 스불론으로 넘어가자 자신이 종의 소생이기 때문에 축복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읽기라도 하였는지 야곱은 단에게 예언을 주면서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창 49:16)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창 49:17) 단은 길섬의 뱀이요 셋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창 49:18)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은 단을 뱀과 독사로 묘사합니다.

뱀같이 간교하고 독사같이 기습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여 곤경에 빠뜨릴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단 지파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사사 시대에 처음으로 우상 숭배를 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삿 18:1-31).

그렇지라도 야곱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라고 하여 모든 자식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합니다.

갓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 49:19)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 지파의 호전성을 말합니다.

갓 지파는 가나안 점령 후 목축하기에 좋은 기름진 가나안 외지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요구하여 얻었습니다.

땅이 기름진 만큼 동편의 암몬과 미디안으로부터 수시로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그런 시련을 통해 강해졌고 그리하여 더 이상 추격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추격하는 강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시련과 연단을 두려워하여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우리를 단련시켜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셀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 49:20)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 지파는 지중해 해변 가, 갈멜의 낮은 지대로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진 지역을 분배 받았습니다.

따라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거둔 식물들은 왕궁에 식량으로 조달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원목을 공급 받는 대신 이곳에서 소출되는 식량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왕상 5:7-12).

납달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 49:21) 납달리는 농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야곱은 납달리 지파를 암사슴에 비유하며 아름다운 소리를 발한다고 합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 때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이 납달리에서 나왔으며 이들이 사역을 통해 복음의 아름다운 소리를 발한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셉을 향한 축복의 예언은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 깊습니다.

(창 49:22)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 특별히 샘 곁의 무성한 가지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요셉의 가문은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게 될 것이며 다른 지파에까지 도움을 주며 살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창 49:23)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창 49:24)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창 49:25)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창 49:26)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말은 과거 요셉이 형들에게 핍박을 당한 것을 가리킵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손'이란 야곱 자신을 모든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말합니다.

요셉이 수많은 시련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대적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고후 4: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후 4:8)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후 4:9)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막내 베냐민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 49:27)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유다는 사자, 잇사갈은 나귀, 단은 뱀과 독사, 납달리는 암사슴, 베냐민은 이리로 비유합니다.

베냐민을 이리에 비유한 것은 베냐민 지파의 거칠고 호전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아침에 싸워 이기고 저녁에는 그 전리품을 나누는 전쟁에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에서는 용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사 에훗, 사울 왕, 요나단, 모르드개, 에스더, 사도 바울 등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나 이런 호전적인 성격은 자칫 교만과 잔인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각 지파에 대한 축복에는 경고도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베냐민을 끝으로 야곱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이를 열 두 아들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예언을 마칩니다.

(창 49:28)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은 열 두 아들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열 두 아들들을 향해 축복하고 예언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근간으로 구성될 미래의 열 두 지파를 향해 행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애굽 땅에 거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가 차지할 영역과 특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예언의 내용들은 비록 야곱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섭리와 그 백성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과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에게 적절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각 사람의 기질과 재능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분량대로 사명을 주시고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이삭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야곱은 비록 애굽으로 내려와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열 두 아들들이 후일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각각 맡을 역할을 예언하고 축복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하나님 역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복의 근원되신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 만큼 부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과 은혜는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대대로 흐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만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험통한 미래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신 30:16)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